

# 약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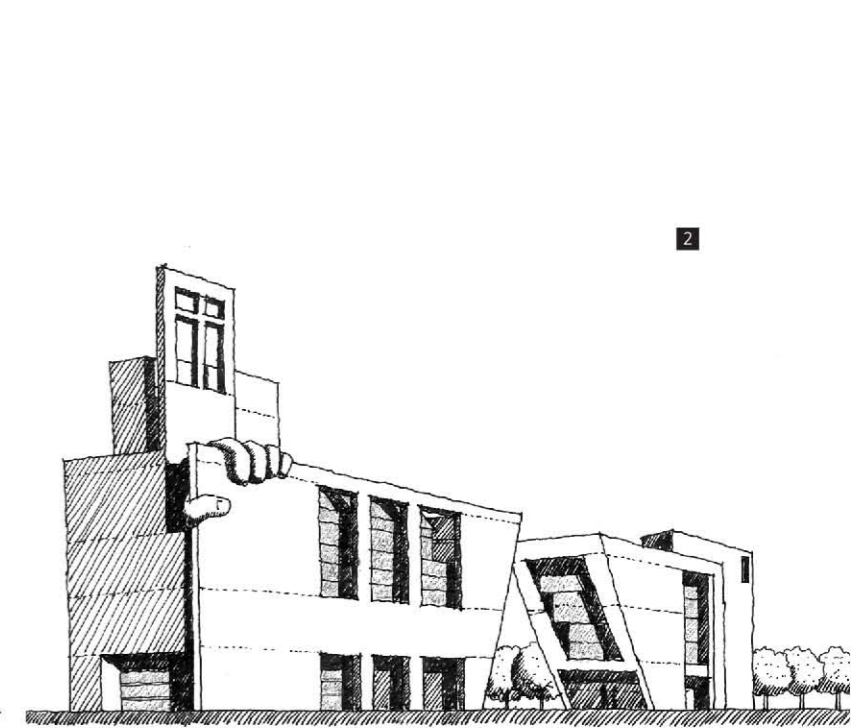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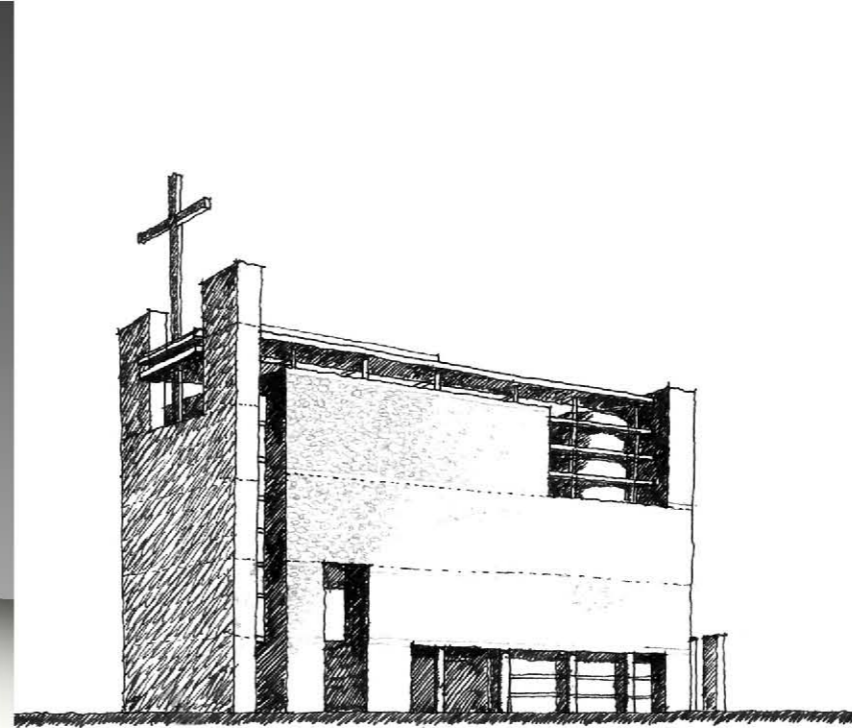
Yaksu Church

설계자 \_ Architect, 조현철 \_ Cho, Hyun Chul  
 이다 건축사사무소 \_ IDA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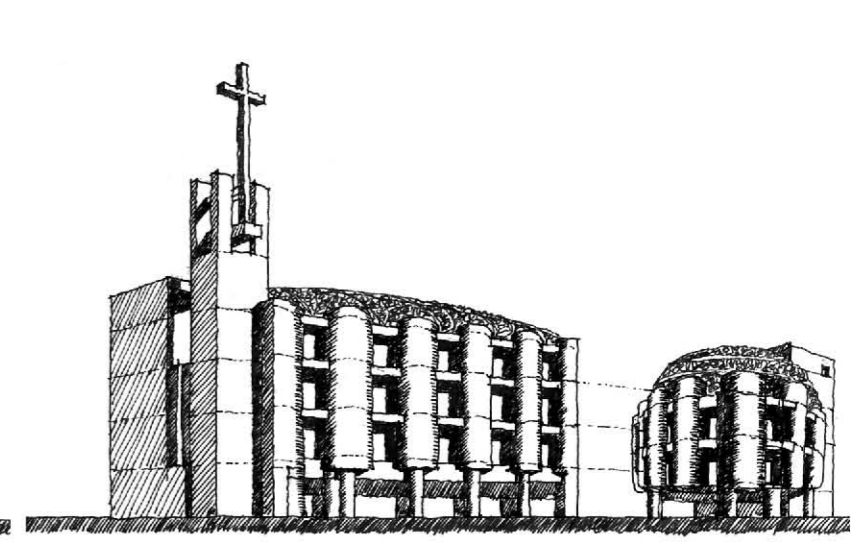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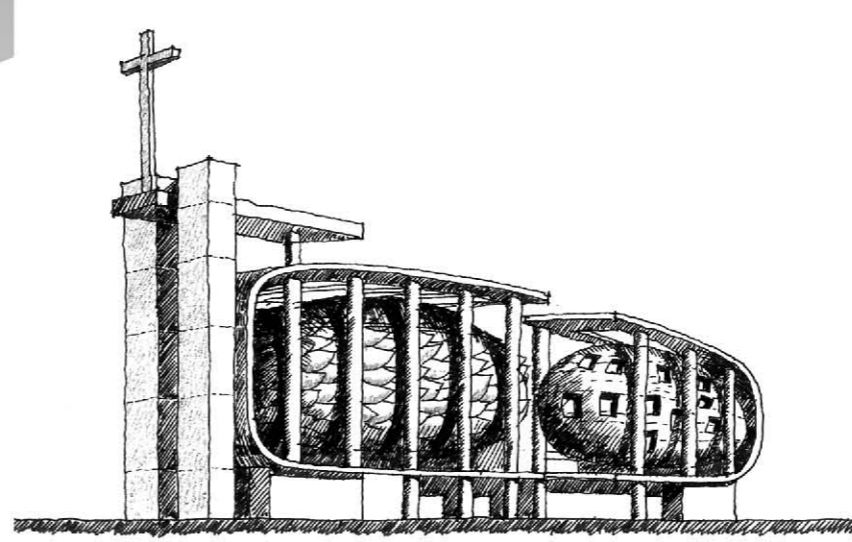
건축주 | 약수교회  
 감리자 | 이다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성실아이종합건설  
 대지위치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86  
 주요용도 | 종교시설  
 대지면적 | 1,072.00㎡  
 건축면적 | 420.85㎡  
 연면적 | 2,233.00㎡  
 건폐율 | 39.25%  
 용적률 | 93.08%  
 규모 | B2F - 3F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점토벽돌, 페인트  
 설계기간 | 2003. 03 - 2004. 12  
 공사기간 | 2005. 01 - 2006. 08

Client | Yaksu Church  
 Supervisor | IDA Architects  
 Construction | Sungsil-i Construction Co. Ltd.  
 Location | 68, Byeoryang-dong, Gwacheon-si,  
 Gyeonggi-do, Korea  
 Program | Religious facilities  
 Site area | 1,072.00㎡  
 Building area | 420.85㎡  
 Gross floor area | 2,233.00㎡  
 Building to land ratio | 39.25%  
 Floor area ratio | 93.08%  
 Building scope | B2F - 3F  
 Structure | RC  
 Exterior finishing | Exposed concrete, Brick  
 Interior finishing | Exposed concrete, Brick, Paint  
 Design period | Mar. 2003 - Dec. 2004  
 Construction period | Jan. 2005 - Aug. 2006



나현익스키치 본안 최종본안  
2002. 5. 9. 2층

나현익스키치 2002. 12. 24.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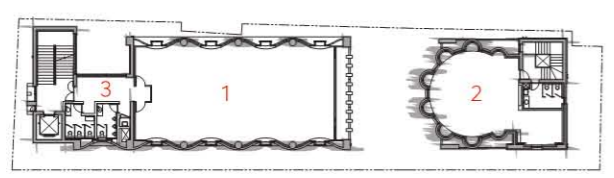


나현익스키치 2002. 12. 24.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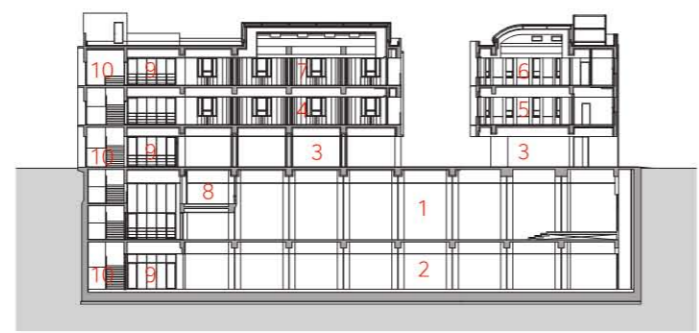
나현익스키치 2002. 12. 24. 2층

- 1. 대예배실 2. 부속실 3. 주차장 4. 소예배실 5. 교육실
- 6. 성가대실 7. 사무실 8. 음향실 9. 홀 10. 계단실

- 1. 소예배실 2. 교육실 3. 홀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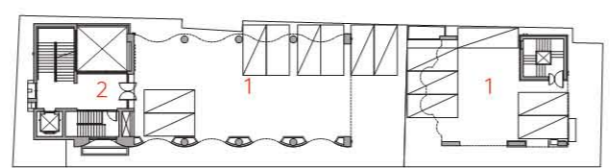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1. 대예배실 2. 홀 3. 선관



지하 1층 평면도

- 1. 주차장 2. 홀



1층 평면도

신혼 초 살던 동네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교회는 2002년 본관 개축을 계획하며 다방면으로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를 알아보던 중인 것 같았다. 때마침 근처 대지의 별도 교육관 건축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보여드린 게 계기가 되어 본관 계획을 요청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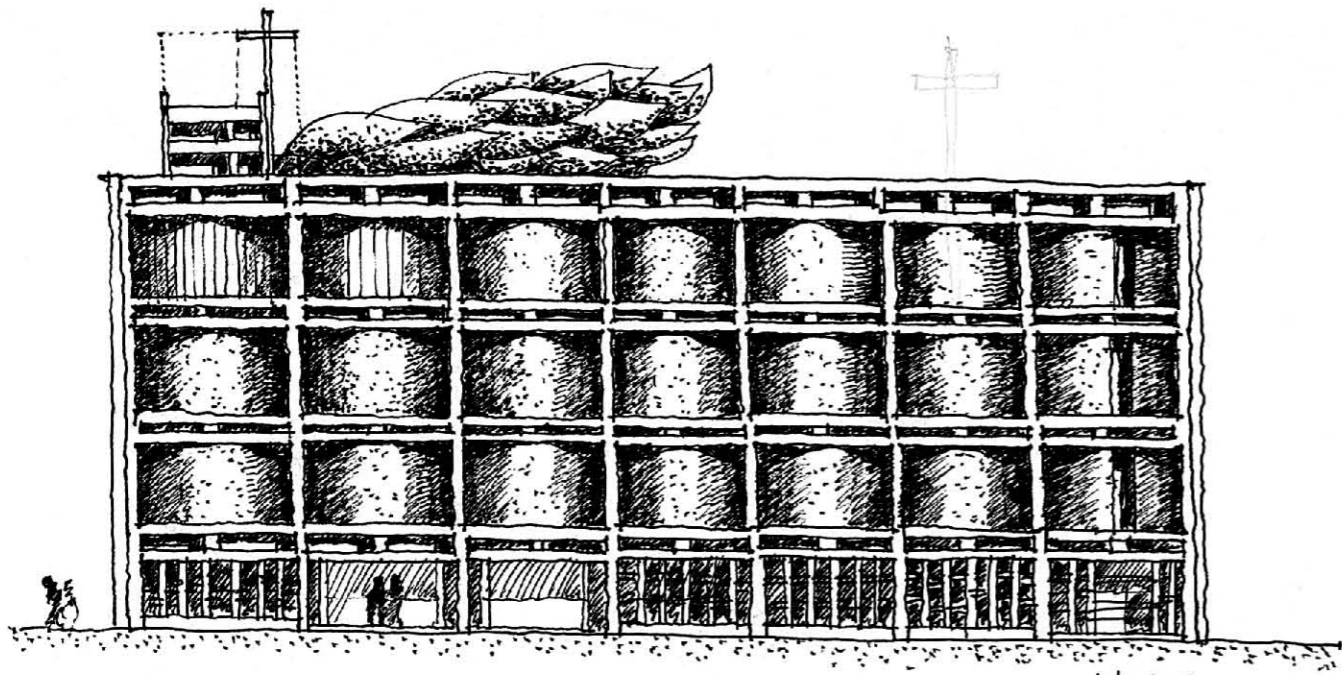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은 나에게 항상 어려운 숙제였던 게마인사프트(Gemeinschaft), 게젤사프트(Gesellschaft)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만들었다. 늘 그랬지만, 본능적으로 계획안을 스케치하고 또 하루 이를 생각하고 또 스케치하며 반복되는 시간이 흘렀다. 양상한 갈비뼈처럼 골조를 드러내는 형태에 집착하며 몇 가지 안을 만들어 제안했다. 그날 건축주가 망설임 없이 계획안을 선택하면서, 나머지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부 다른 모습으로 내·외부 증축이 진행되어 많이 안타깝지만, 나에게 밤을 하얗게 지새운, 정말 소중한 과정을 겪은 첫 건축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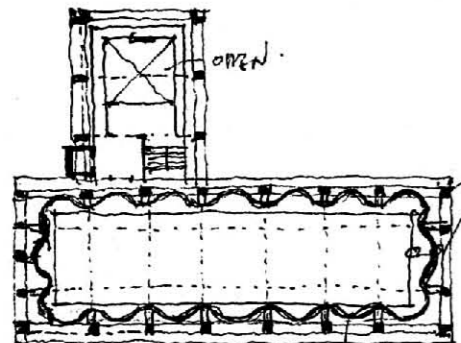
지금도 아직 그때의 열정을 간직하고 작업 중이며, 또 다른 강한 의지가 표출되는 다음 건축물 작업을 기대해 본다. (사진자료 : 2013년 1차 증축 후)

- 1. CG 조감도 2. 스케치 3. 초기 스케치 4, 5. 북측 전경 6. 남측 전경 7. 남측 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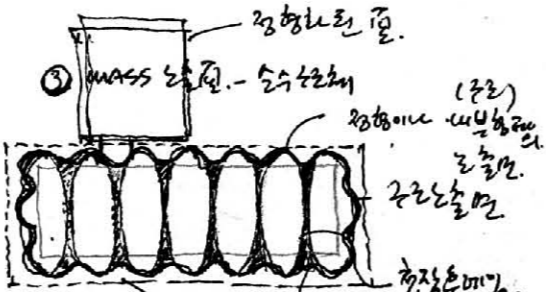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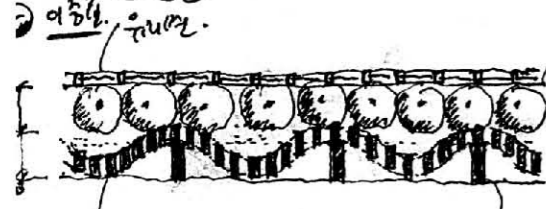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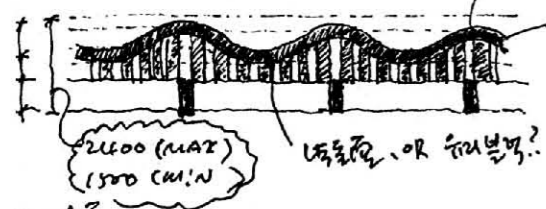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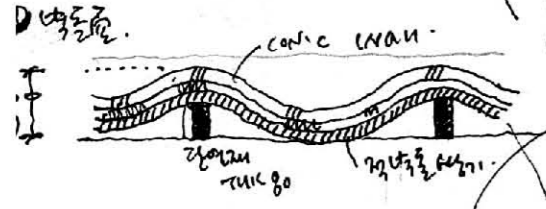
輔修堂  
대전약수교회 2003. (2차)



큰 FRAME.  
유리(BOX)  
아니면 벽돌이면?  
벽돌이면 왜로 사는지 모르.



정형화된 것.  
① MASS 구조물 - 수직축에  
(중요)  
정형이나 수직축에  
중요한  
구조물이면  
현상유지.



2400 (MAX)  
1500 (MIN)  
벽돌 2층 20% 정도는 벽돌 두께 시킨다.  
비교하면 원래 70% 정도 -  
3,000 (MAX) - 나무 같은 경우 - 2400 (MIN)  
1500 (~ 1800 (MIN) - 나무 같은 경우.  
2100 정도.

① FRAME (CONC) + 벽돌이면.  
② CONC FRAME + 벽돌이면 + 나무 + 유리.

수직축으로만 생각할 경우 → 수직축으로  
현상유지에 대한 적용도 모르겠어  
이런 류의.

벽돌로만  
생각할 경우엔.  
벽돌로만  
생각할 경우엔?  
2400  
~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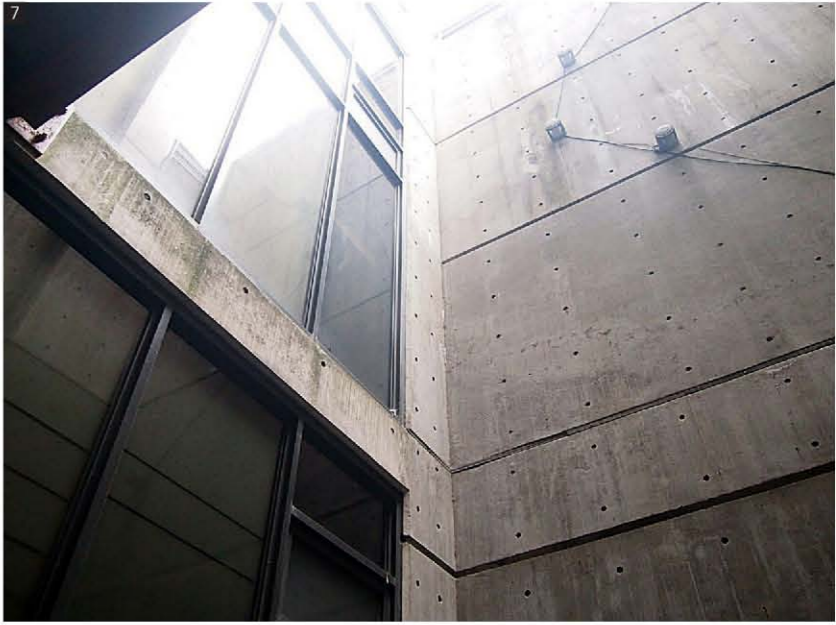
약간의 벽돌 두께를 시키는  
인피의 구성안.  
프로그래밍이 더 강하게  
현상유지 느낌.  
리얼리티는 현상유지의 느낌.

벽돌의 현상 유지는  
적용적인  
인피 현상 유지는 된다.  
이건도 중요 →

현상유지  
\* 인피가 정형화한 경우  
유리면으로 하러 나무를 바깥쪽에  
생각(현상유지) 아니면  
반대로 활용한다.  
벽돌의 등호는  
인피 기능을 잘  
어느 정도 기능을  
유한한  
현상유지  
된다

① 벽돌  
1500 - 2400 -  
2400 - 3000 -

② 이층  
3000 ~ 2400 \*  
(중요나 유사바.  
현상유지)  
1500 ~ 1800 \*  
벽돌 두께는  
적용적인 방법도 있음.



I began attending a local church in the neighborhood where I lived during the early days of my marriage. Around 2002, the church was planning to reconstruct its main building and was exploring various architects and contractors. By chance, I had shown the church owner a plan for an annex educational building on a nearby plot, which led to me being asked to plan the main building as well. The question, "What is a church?" has always been a challenging concept for me, prompting me to reconsider ideas of Gemeinschaft (community) and Gesellschaft (society). As usual, I instinctively sketched plans, pondered over them for a day or two, and sketched some more, repeatedly over time. I became

obsessed with a design that exposed the structure like bare ribs and proposed several options. The church owner chose one of the plans without hesitation, and the rest of the design process went smoothly. Looking back, it's regrettable that some parts of the church have been altered or expanded internally and externally without my involvement, but it remains a very precious project to me as it was my first and involved many sleepless nights. I still carry the passion from those days in my current work and look forward to bringing another strong vision to life in my next architectural endeavor. (Photo from the first expansion in 2013)